



### 강원도 평창 만세



권태하(작가, 검교공파 33세)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개최지로 결정되는 순간을 TV중계로 지켜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감격했다. 3번째의 도전으로 얻어낸 결괏값이어서도 그러하였지만 평창이 내게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라서 더욱 더 그러하다.

지금은 그래도 이효석문학관을 비롯하여 용평스키장이며 골프장 등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사람 사는 곳이 제법 많이 늘어난 상태이지만 15-6년 전만 해도 평창은 조그만 시골의 한적한 소도시일 뿐이었다. 평창읍으로 들어가는 시멘트다리를 건너면서 평창읍을 바라보면 마치 투명한 유리상자 꼭 안에 진열된 미니추어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평창은 맑고 아담한 곳이었다. 당시만 해도 군청건물 등 몇 안 되는 2층집 외에는 모두가 단층집뿐이었고, 물도 깨끗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그래서 사람들 심성이 맑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다.

그 무렵 전국 각지에서 자기에 지역의 역사나 지역특산물 등을 주제로 지역문화행사가 생길 때였는데 평창군이 임진왜란 당시 평창 노성산성에서 왜군과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선조들의 충혼을 주제로 노성문화제를 하면서 임진왜란 당시 평창군수이었던 나의 12대조인 권두문 군수의 후손들을 아현관으로 초청하여 대표단 일행으로 간 것이었다.

1592년 4월에 부산포에 상륙한 왜군이 한양을 점령한 후 한경도에서 왕세자를 잡아 한양으로 압송한 고니시 부대의 모리요시나리(森吉星)가 강원감사로 임명을 받자 휘하를 거느리고 강원도 원주로 가기 위해 태백산맥을 따라 내려오면서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하는 평창을 들리게 된 것이었다.

당시 본가인 경북영주를 떠나 부실과 아들을 데리고 평창군수로 재직했던 내 12대조 직계 파조이신 남천(南川) 권두문(權斗文)께서는 왜군들이 파죽지세로 종횡무진 하는 동안 계속하여 항복을 하거나 도망을 쳤던 타군의 군수들과는 달리 항복권유통지문을 가져온 사자를 단칼에 처단하고 백성들과 함께 노성산성으로 올라가 왜적과 항전을 했다.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쳐진 노성산성의 유리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관민이 하나 되어 죽기를 각오하고 왜군을 맞아 3일 동안 항전을 하였지만 적의 조총에 많은 아들이 죽고 결국 중과부적으로 힘이 부쳐야 아밤을 이용하여 줄을 타고 절벽을 내려와 평창강에 배를 타고 천연동굴인 응암굴로 피신을 하여 다시 또 며칠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군수와 그의 아들과 백성들이 왜병들의 포로로 잡히고 만다.

권두문 군수는 그 당시 왜군이 평창에 들어오기 전에 척후를 통해 왜군의 움직임을 알고 보고받았을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 이후 왜군이 평창에 들어와 전투를 하고, 자신이 아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 강원도 원주감영으로 이송되는 과정과 원주감옥에서 폭우가 쏟아지던 밤 탈옥을 하여 자신의 임지인 평창으로 잠입하여 병부를 수습하고 고향집을 찾는 약50일간의 기록을 호랑이 입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비유하여 호구일록(虎口日錄)이란 제목으로 일기책을 써서 그의 문집인 남천문집(南川文集: 규장각비지)에 기록으로 남겼다.

같은 남천지파인 서울 9자구의보조함장인 오장(五昌)쪽이 아버지 영식(寧植)님께서 한글로 번역하신 호구록 번역

본을 출판할 때 서문을 써 주면서 호구록을 읽어본 TV 사극작가 신봉승(조선왕조 5백년)작가는 충무공의 난중일기를 포함해 간양록에 이르기까지 임진왜란의 난중일기가 여러 가문에 걸쳐 여러 권이 있지만 호구록처럼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없으면서 임란 당시 백성들의 참상과 왜군의 복식, 계급서열, 식물관 등을 볼 수 있는 사료로서 가치와 역사문화의 가치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고 평해주었다.

지금도 해마다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평창 노성문화제는 권두문을 비롯한 임란당시의 호국선조들에게 올리는 제사를 시작으로 거행되는데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지 행사에 가 보면 부러운 정도로 인파로 넘쳤다. 아마도 임진왜란 때부터 관민이 하나 되어 합심하는 데는 이력이 쌓여서 그런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지난번에 IOC 위원들 현지실사에서도 평창 주민들의 열의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발령을 받아 임지를 옮겨 다니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들어갈 때 가기 싫어서 울고 나올 때 떠나기 싫어 오는 곳이 평창이라고 한다. 떠엄떠엄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 그 어느 곳보다도 단합이 잘 되는 강원도 평창, 이 제 7번 뒤 강원도 평창은 관민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완전 탈바꿈을 하리라 여겨지니 벌써부터 그 변할 모습이 금금하여 가슴이 뵈다.

### 광복절(光復節)

東雲 권혁용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8월 15일 광복절. 이는 국경일의 하나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찾은 것을 기념하고, 또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이날을 광복절이라고 하고 국경일로 정하였다. 광복절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한-일 합방조약의 성립으로 우리나라는 주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를 경술국치(庚戌國恥)라 한다. 미국의 제 28대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기운에 힘입어 1919년 3월 1일 거족적인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독립의 밑거름이 되었다. 동년 4월 17일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계속 독립투쟁을 전개해 왔다.

1943년 11월 27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카이로 공동선언에서 '삼대국(三大國)은 적당한 순서를 밟아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결심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약속된 최초의 선언이었다. 1945년 7월 26일, 베를린 교의 포츠담에서 미국의 트루먼, 영국의 처칠(나중에는 회담 도중 실시된 총선거에서 새로 집권한 노동당의 에틀러 수상으로 교체됨), 소련의 스탈린의 3거두가 모여 회담하고, 회담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은 중국의 장제스 총통의 명의로까지 포함된 선언에서 대일 항복조건과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다시 확인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으로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북위 38도선 이남에는 미군이, 이북은 소련군이 각각 진주하여 군정(軍政)이 실시되었고, 또한 국토도 양단되고 말았다. 1945년 12월 2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의 3국 외상회의에서 ①한국 임시정부의 수립, ②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 ③한국을 5년 이내의 기간 미·영·중·소 4나

라의 신탁통치 하에 둘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신탁통치의 결정에 격분하여 거족적인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전개되었고, 신탁통치는 결국 좌절되었다.

1947년 9월, 한국의 남북한을 통한 자유선거로서 한국정부를 수립코자 UN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였으나, 북한 입국을 거부당하여 UN 소총회에서 1948년 2월 26일에 선거 가능지역만의 선거를 결정하게 되었다. 1948년 5월 10일 UN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38도선 이남만의 총선거로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1948년 7월 17일 공포하였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부를 조직하여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내외(內外)에 선포하였다. 자유우방 각국은 우리나라를 잇달아 승인하였고, 1948년 12월 12일에 제 3차 UN총회에서는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금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66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3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다. 정부수립 이후 1950년의 6.25사변, 1960년의 4.19혁명과 제 2공화국, 1961년 5.16혁명과 제 3공화국, 1972년 10월 유신의 단행과 제 4공화국 탄생 등의 정치적 변화를 거치며 1987년 제 9차 헌법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운영하면서 오늘의 발전상을 보여 왔다. 앞으로 급변하는 국제사회와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면서 선진 복지국가로 계속 발전되기를 기원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뜻 깊은 광복절 8월 15일,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하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기원합시다.



### 시대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서진(西晉)을 이어받아 동진(東晉)이 강남에 근거지를 마련하고서 얼마 안 되어서 중원지역은 크게는 셋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동진이고, 다른 하나는 동진을 곤란하게 한 한(漢)으로 국호를 조(趙)로 바꾸어 전조(前趙)로 불리는 나라였다. 또 다른 하나는 전조에서 독립한 석록(石勒)이 세운 조(趙)나라다. 이를 보통은 유씨의 전조와 구별하여 후조(後趙)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왕조를 만든 후조는 아직도 동진(東晉)의 소유인 중원의 동부, 즉 산둥지역으로 진출하려고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되자 지금의 북경지역인 유주(幽州)와 그 부근에 있는 병주(并州)와 기주(冀州)를 놓고 동진과 후주가 전투를 벌여야 했다.

그래서 후조에서는 석호(石虎)가 이 책임을 맡아서 동진의 유주지사인 단필제(單匹)를 공격하였다. 이에 단필제는 그의 동생 단문양(段文陽)으로 하여금 이를 막게 하였다. 단문양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국 패적이었다. 결국에는 타던 말이 기력을 잃고 넘어졌다. 이를 본 석호가 단문양에게 말하였다. '형, 그 동안 우리는 서로 잘 지냈으니, 구태여 싸울 필요가 있겠소?' 석호가 유화적인 말을 건넸다. 적장 단문양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싸우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용감하기로 이름 난 단문양은 소리쳤다. '너는 침략하는 도적놈이고, 마땅히 오래 전에 죽어야 하던 것인데, 내

형님이 나의 계획을 채용하지 않았던 고로 내가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는 차라리 싸우다 죽을지언정 너에게 굴복하지는 않겠다.' 9년 전에 동진의 요서공인 단질육권이 석록을 공격하였을 때에 석록이 동진에 화의를 구한 일이 있다. 이때 단문양이 화의를 극력 반대하였으나,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석록을 죽이지 못한 일을 거론하면서 항복을 거절한 것이다.

다시 부러진 칼을 잡고 무려 6시간이나 악전고투하였으나, 결국은 후조의 군사들에게 붙잡혔다. 이제 단필제가 있는 성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단필제는 어찌 할 수 없이 말을 타고 동진의 조정으로 돌아 가려고 하였으나 이미 대세가 기울 것을 안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역시 석호에게 가서 항복하게 되었다.

단필제는 석호를 만나자 단호하게 말하였다. '나는 진(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서 마음속으로 너를 없애려고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대에게 공격하는 예의를 차릴 수가 없소.' 항복하려 한 사람이 죽어 달라는 말과 같은 내용이다.

석록의 공격을 받은 단필제와 단문양 형제는 원래 한족(漢族)이 아니었지만 동진에서 벼슬을 하면서 동진을 위하여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아서 같은 한족(漢族)이 아닌 석호에게 항복하는 것은 그대지 이상할 것도 없는 상황인데, 이를 거절할 것이다.

그러나 후조의 왕인 석록과 석호는 전에 단필제와 형제관계를 맺었던 사이이므로 석호가 일어나서 잡혀온 단필제에게 절을 하였다. 그리고 단필제를 관군(冠軍)장군으로 삼고 단문양을 좌(左)장랑으로 삼았다. 물론 단필제가 다스리던 동진의 유주 등 세 개의 주는 후조의 영역이 되었지만 단필제 형제만은 후조에서 좋은 대우를 받은 것이다.

그 후에 이들은 후조에서 오래도록 살다가 죽었다. 그러나 사는 동안 석록에게는 예(禮)를 차리지 않고, 동진에서 조정에 나갈 때에 입던 조복(朝服)을 착용하였다. 또 동진에서 관직을 받을 때 신포로 받은 부절(符節)을 항상 들고 다녔다.

단필제와 단문양은 모두 이적(夷狄) 출신이기는 하지만 동진의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인 것이다. 당시의 풍토는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었다. 이에 비교한다면 이들의 행동은 확실히 특별하였다. 또 잡혀 와서도 동진을 흠모하는 이들에게 높은 관직을 준 후조의 석록과 석호도 보기 드물게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매 시대마다 그 시대의 풍조는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은 그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행동하지 않는다. 이익만 있고, 의리와 충성 같은 것이 없는 남북조시대에도 이런 풍조와 달리 충성스럽거나, 너그러운 사람이 있었다. 이해관계가 행동의 지침이 된 오늘날에 과연 단필제형제나 석씨 같은 사람이 있을까 살펴 볼 일이다.

### 기행문

### 先進 西部유럽 探訪

■ 권계동 (본원상임부총재)



방, 5개의 왕비들을 위한 방을 돌아보고 밖을 나와 뒤뜰의 잘 정돈된 정원을 돌아보았다.

### 7) 시원한 세느강의 유람선관광

프랑크 투어는 파리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세느강의 바토무슈 유람선을 타고 세느강 주변의 아름다운 뽀네프다리 및 중세시대의 건물 정경 등을 돌아보는 관광이었다.

바토무슈 유람선은 약 400여명이 탑승할 수 있다고 하나 우리가 탔을 때는 관광객이 그리 많지 않았다. 유람선을 타고 세느강의 다리 36개 중 26개를 통과하며 양쪽의 경치, 루브르박물관을 비롯한 유적, 성당 등을 둘러보았다.

강의 양쪽 가에는 크고 작은 각종 배들이 정박되어 있고 군데군데 휴식 공간도 있었다. 뉴욕 자유의 여신상 모조품인 바르톨디를 돌아 약 20km나 되는 거리를 도는데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밤에 유람선을 타고 세느강변의 아름다운 만각하지 못한 어수함을 남기고 무거운 발걸음 돌리고 말았다. 유람선에서 내려와서 Paris Look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미미락(味味樂)식당에서 해산물찌개로 저녁밥을 먹었다.

파리국제공항에 가서 AF 2219편으로 21:40에 출발하여 1시간 만에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하였다. 공항을 나오니 현재의 여자 가이드 오경화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시내에 나와서 Golden Arch Hotel에 투숙하였다.

### 3. 민주주의가 싹튼 스위스

3월 5일(수) 일찍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가이드로부터 배운 인사말을 복습하기 위하여 로비로 내려왔다. 로비에는 젊은 남자 한사람이 있어 그에게 인사말을

성원에 감사합니다	
■ 회장단회비	
▲ 권영선(부총재)	100만원
▲ 권선우(원인)	100만원
▲ 권경용(부총재)	100만원
▲ 권용기(부총재)	100만원
▲ 권규환(부총재)	100만원
	소계 500만원
■ 대의원회비	
▲ 권형정(대구)	10만원
▲ 권운환(대구)	10만원
	소계 20만원
■ 찬조금	
▲ 권경섭(부총재)	200만원
	<b>합계 720만원</b>

배웠다. 아침인사는 봉수(Bonjour), 저녁인사는 봉수알(Bonsoir), 고맙습니다. 맥시(Merci), 안녕히 계세요. 오 르브와(Au Revcir) 등을 배웠다.

호텔에서 아침밥을 먹고 07:30부터 관광을 시작하였다. 맑은 날씨에 상쾌한 아침이었다. 스위스의 수도는 베른이고 유럽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한의 1/2 정도인 넓이에 인구가 약 710만명(베른 120만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에는 최고 28℃, 겨울은 -1℃ 정도라고 하였다. 언어는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 고대로마어 등을 쓰며 종교는 기독교와 카톨릭(48%), 개신교(44%), 기타(8%)이며 통화는 스위스 프랑이고 통화의 종류로는 지폐와 주화가 있다고 하였다.

정치형태는 26개의 주로 형성된 연방공화국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이다. 스위스의 기원은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게르만 민족의 대 이동 때 스위스 원주민인 헬베티아족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면서 현재의 원형을 이루었다고 한다.

신성로마제국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13세기에 독립운동이 본격화되었으며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벗어나 1648년 빈 회의를 거쳐 영세중립국으로 승인되었다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權泰允 검교공파총회장 별세**

權泰允 검교공파총회장이 지난 6월 2일 대구시 대봉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故人是 고려대경제과를 중퇴하고 대구지방검찰청 법무사 개업, 대구중회회 14대 회장 및 고문, 국제라이온스협회 309 D지구 화랑라이온스협회 창립 및 4대, 21대 회장, 309 D지구 제4지역 부총재 등을 역임하면서 문사와 사회봉사활동에 크게 헌신했으며 5월 3일장으로 다수의 조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 청구공원 묘지에 안장했다. 유족으로는는 미망인 방옥조 여사와 2남 2녀가 있다.

**권혁창 씨 지당 별세**

권혁창 한국도지주택공사 과장의 지당 동복오 씨가 7월 12일 안동시 태화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故인은 항상 인자, 자중, 자애 하면서 여필종부로서 부군을 내조하며 매사에 모범을 보이셨다.

14일 3일장으로 많은 조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선영에 안장했다.

유족으로는 부군 權五秀 씨(안동 권씨대종원부총재, 북아공파총회 고문)는 권문문사 중흥에 크게 헌신하고 있으며, 2남 1녀가 있다.